

## 신발착용실태 조사와 치수 및 형태 개선을 위한 제언

- 10代와 20代 여성을 중심으로 -

김세나 · 최혜선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본 연구는 신발 착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0대와 2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진촬영 및 착용 중인 신발치수를 조사하고, 신발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신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적합성이 우수한 신발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국내 신발 생산업체 조사 결과

각 사이즈에 대한 끈 길이 치수를 보면 신발치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량이 등간격으로 증가되고 있다. 굽이 낮은 캐주얼이나 학생화는 12~18mm의 여유분을, 앞이 길게 빠지고 발등이 낮은 스타일은 25~50mm, 샌들(sandal)류는 3~5mm를 두고 운동화류는 일반적으로 여유분을 주지 않는다. 끈둘레 치수는 정장류는 D에서 E를, 캐주얼화류는 볼 치수를 E에서 EE를 선택하여 구두를 제작하며 사이즈별 생산비율은 신발 스타일과 판매 대상에 따라 다르며 보통 240mm에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생산하고 있다.

### 2. 사진촬영 조사 결과

신발 종류는 조사시기가 7월인 관계로 샌들류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나 10대에 있어서는 계절과는 무관하게 운동화와 일반화가 많이 관찰되었다. 앞코모양은 일반 구두류는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세미포인트드 토우의 순이었고, 갑피소재는 일반구두류는 천연피혁, 샌들류는 합성피혁, 운동화류는 기타 소재(천소재)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 3. 설문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신발착용시간은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인, 하루 6시간 이상 장시간 신발 착용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는 발바닥 통증이 가장 많았다. 또 굽이 낮은 캐주얼과 운동화가 가장 많이 착용되는 반면, 불편함이 가장 적게 나타나 신발 선택 시 착용감이 가장 우선 되고 있었고 개선사항 역시 착용감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아, 치수 부적합성과 원·부자재 경질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정장이나 오픈 스타일 등에서는 발치수와 비슷하게 신발치수를 선택하고, 운동화와 처커 부츠류는 0~40mm이상까지의 치수차이로 선택하고 있었다.

### 4. 신발 제작 시 개선사항

여성용 신발의 경우 앞코가 좁은 하이힐로 인해 발가락이 아프거나 발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발바닥 중앙 부분(arch)을 유연하게 받쳐 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발가락의 변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발의 조인트와 신발의 조인트가 일치하도록 신발이 제작되어야 한다. 장시간(하루 6시간이상) 신발 착용시 발바닥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보행 시 압력을 고루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창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장화 스타일이나 오픈 스타일에서는 비교적 발치수와 비슷하게 신발치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발 제작시 치수적합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